

종단소식

조계종

월정사 탄허스님 다례

강원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23일 대웅전에서 탄허스님 다례제 및 한양문도회를 개최한다.

금암스님 부도 제막

강원 고성 건봉사(주지 해장)는 5일 부도전에서 금암스님 부도 및 공덕비 봉안식을 봉행했다.

금암스님은 5대 만일염봉화 화주로 활동했으며 1934년 부처님오신날 만세사건으로 왜경에 연행돼 승적을 박탈당했다.

안동 봉정사 괘불점안

경북 안동 봉정사(주지 법해·동국대 정각원장)는 3월31일 괘불점안식 및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태고종

수원 삼불사 개당식

수원 삼불사(주지 혜월)는 3월 29일 개당식을 가졌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인륜빌딩 4층 401호에 위치한 삼불사는 50여명의 규모로 법당, 대방, 공양방을 갖추고 있다.

천태종

금릉사 법당 기공식

구미 금릉사(주지 지도)는 3일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법당은 2백56평에 지상 3층의 규모로, 요사채 대방 등이 부대시설로 갖춰질 계획이다. 지도스님은 "흙 한줌한줌에 불자들의 정성을 담아 법당이 무사히 완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3사단 OP서 점등법회

총무원(원장 윤덕)은 15일

오후 7시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법공 OP 호국동원기원 점등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타종식 및 점등식, 발원문과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금강불교대학 합창단의 축하 등으로 진행된다.

진각종

관음심인당 월초 불공

관음심인당(주교 원명)은 12일까지 7일간 월초불공을 봉행한다.

불공은 육자언어 '음마니반매홀' 염송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진호국가기도로 진행된다.

미타종

밀양교구 경제회복 법회

경남 밀양교구원(원장 배원광)은 9일 오전 11시 밀양 남천강변에서 국가경제회복기원 법회 및 수록대제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밀양교구원 산하 사암주지 및 신도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조속한 국가경제회복을 기원하고, 근검절약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대승종

종무원장 봉축행사 논의

총무원(총무원장 일오)은 3월22일 안양 민장사에서 총무원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5천여만원의 신년 예산을 책정하고, 봉축 기념행사 등을 논의했다.

화엄종

화엄장학금 75명에 전달

화엄장학회(이사장 정희수)는 12일 인천 약사사에서 '불기 2542년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생 8명, 고등학생 67명 등 총 75명에 2천3백여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한편, 화엄장학회는 이날 <<가칭>>화엄종 장학재단 발전사) 발간 준비위원회 발족식도 갖는다.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기꺼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치매노인 보호소 첫 개설

복지법인 인덕원 1일부터 시범운영

외출을 고집하는 치매노인처럼 가족들을 난감하게 하는 경우도 드물다. 허락을 하거나 길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금지할 경우 실랑이를 벌여야 할 뿐더러 자칫 운동부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치매노인 4명중 3명이 길을 잃어 해마다 발견될 정도. 치매노인들이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억력 감퇴와 더불어 방향감각과 공간지각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원장 성운스님, 상천사)은 1일 이들을 돕기 위해 치매노인 단기보호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했다.

파노인종합복지관등 치매노인 주간(주간)보호소 및 요양원도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한 단기보호소는 이번이 처음.

치매노인 단기보호소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사고 질병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가 돌보지 못하는 치매노인들을 1일~15일간(2회 연장가능) 24시간 내내 거의 무료(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저소득층은 하루 8천원)로 보살피도록 해서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

인덕원은 65세이상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15명을 정원으로 단기보호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2일 현재 등록 인원은 모두 10

1~15일 동안 말야 돌봐 급식 목욕 의료 등 서비스

명. 할아버지 3명과 할머니 7명이 중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간보호 대상 노인들과 어울려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주요서비스로는 △목욕, 이·미용 등 위생서비스 △산부인과, 장형외과, 내과, 한방, 수지침, 물리치료 등 위료서비스 △노래교실, 영화감상, 종이접기, 미술교실 등 취미활동을 통한 치료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생활보조원 3명, 야간간병인 2명 등 전담직원과 불광동의원장 도평스님



노래자랑 회상요법 치매노인들은 심한 건망증에도 불구하고 노래가사는 기억한다. 인덕원 간호사들이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축탁의), 연신정신과의원(협력병원) 의료진 등 스텝진이 주·야간 치매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박혜영 사회복지사는 "가족중에 치매환자가 있어도 쉬쉬하며 숨기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과 단기보호소를 오가며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인덕원은 양천구 신목종합복지관과 함께 서울시에 예산지원 신청을 내놓은 상태. 후원이 아쉬운 현장이다. (02)385-8205

김재경 기자

만불회 17000옥불 봉안

사부대중 3만여명 운집...11년불사 회향

만불회(회주 학성)는 29일 만불보전 낙성 및 1만7천 옥불 점안 법회를 경북 영천 만불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3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원당스님(수덕사 방장) 보성스님(송광사 방장) 봉주스님(前 해인사 주지) 등 큰스님 천여 명 및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다. 또 구해스님 등 10명의 어산스님들이 3시간에 걸쳐 어산 법패 영가전도 대제를 거행했다.

이에 앞서 28일 전야제에는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일만옥불 봉안과 관련 학성스님은 화합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제주 존자암지 복원된다

현상변경 허가...법당·요사채 등 정비

석가모니부처님의 직계 제자 발타라존지가 직 접에서 불법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주도 존자암지(도기념물 제43호)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본지 제 27호 11면 참조).

제주도문화재위원회는 3월8일 존자암지가 발굴조사에 의한 유구의 규모에 맞게 복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자암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진이스님·법흥사주지)는 법당 28평, 요사채 20평 등을 복원하고, 부도 1기 및 기타 현존 유구와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 6월 착공식과 함께 공사를 시작, 내년 초과일에 완공할 방침이다. 한편, 복원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사)아세아태평양문화협회장 강병규씨를 비롯 일본 남선사방

만불회(회주 학성)는 29일 만불보전 낙성 및 1만7천 옥불 점안 법회를 경북 영천 만불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3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원당스님(수덕사 방장) 보성스님(송광사 방장) 봉주스님(前 해인사 주지) 등 큰스님 천여 명 및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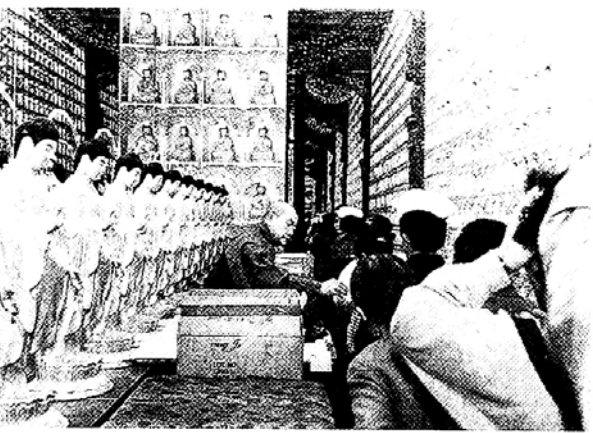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옥불 점안의 의미를 새겼다.



경북 영천 만불사 만불보전 낙성 및 1만7천불 점안법회.

태고종 양평대교서 수록영산법회

경제난 극복·환경보전 결의

환경보전 및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수록영산대법회가 1일 남한강 양평대교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주최한 수록영산법회는 법어, 발원문 낭독, 환경보전실천 선언문 채택, 수록영산채 등으로 진행됐다.

인곡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묘하고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난극복을 극복하기 위한 원력불사로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국운융창과 경제되살리기 범국민계몽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태고종은 법회에서 △불자의 사명은 지구환경보전 △검소한 생활 통해 환경오염 최소화 △사찰주변 정화와 자연보호활동 실시 △발우공양정신의 생활화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4개항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전실천 선언문을 채택,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총무원 각 부장들은 이날 참석한 불자들을 대표해 봉어 1백마리를 남한강에 방생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주최한 수록영산법회는 법어, 발원문 낭독, 환경보전실천 선언문 채택, 수록영산채 등으로 진행됐다.

인곡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묘하고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난극복을 극복하기 위한 원력불사로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국운융창과 경제되살리기 범국민계몽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태고종은 법회에서 △불자의 사명은 지구환경보전 △검소한 생활 통해 환경오염 최소화 △사찰주변 정화와 자연보호활동 실시 △발우공양정신의 생활화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4개항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전실천 선언문을 채택,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총무원 각 부장들은 이날 참석한 불자들을 대표해 봉어 1백마리를 남한강에 방생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주최한 수록영산법회는 법어, 발원문 낭독, 환경보전실천 선언문 채택, 수록영산채 등으로 진행됐다.

인곡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묘하고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난극복을 극복하기 위한 원력불사로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국운융창과 경제되살리기 범국민계몽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태고종은 법회에서 △불자의 사명은 지구환경보전 △검소한 생활 통해 환경오염 최소화 △사찰주변 정화와 자연보호활동 실시 △발우공양정신의 생활화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4개항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전실천 선언문을 채택,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총무원 각 부장들은 이날 참석한 불자들을 대표해 봉어 1백마리를 남한강에 방생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주최한 수록영산법회는 법어, 발원문 낭독, 환경보전실천 선언문 채택, 수록영산채 등으로 진행됐다.

인곡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묘하고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난극복을 극복하기 위한 원력불사로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국운융창과 경제되살리기 범국민계몽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태고종은 법회에서 △불자의 사명은 지구환경보전 △검소한 생활 통해 환경오염 최소화 △사찰주변 정화와 자연보호활동 실시 △발우공양정신의 생활화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4개항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전실천 선언문을 채택,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총무원 각 부장들은 이날 참석한 불자들을 대표해 봉어 1백마리를 남한강에 방생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주최한 수록영산법회는 법어, 발원문 낭독, 환경보전실천 선언문 채택, 수록영산채 등으로 진행됐다.

인곡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묘하고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난극복을 극복하기 위한 원력불사로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국운융창과 경제되살리기 범국민계몽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태고종은 법회에서 △불자의 사명은 지구환경보전 △검소한 생활 통해 환경오염 최소화 △사찰주변 정화와 자연보호활동 실시 △발우공양정신의 생활화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4개항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전실천 선언문을 채택,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총무원 각 부장들은 이날 참석한 불자들을 대표해 봉어 1백마리를 남한강에 방생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주최한 수록영산법회는 법어, 발원문 낭독, 환경보전실천 선언문 채택, 수록영산채 등으로 진행됐다.

인곡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묘하고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난극복을 극복하기 위한 원력불사로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국운융창과 경제되살리기 범국민계몽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태고종은 법회에서 △불자의 사명은 지구환경보전 △검소한 생활 통해 환경오염 최소화 △사찰주변 정화와 자연보호활동 실시 △발우공양정신의 생활화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4개항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전실천 선언문을 채택, 실천의

매일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에 맥 생활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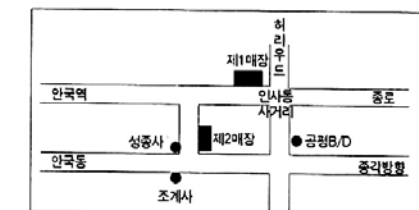


우리옷 "에 맥"의 제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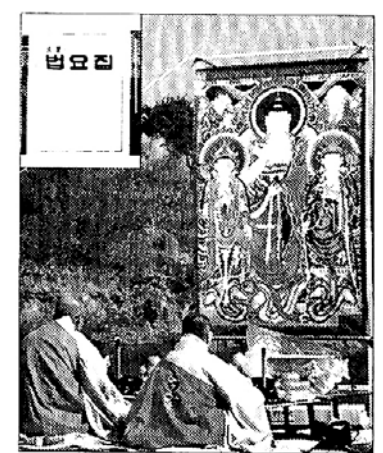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 각종 연회 예복 제작
- 스님들의 간편복
-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 영 매 장: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 佛子로서 본찰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자 구함(여 30세 이상 불자)

본 사: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에 맥 어패럴  
전 화: 737-0804~6 팩 스: 723-4599  
제1매장: 서울 중로구 인사동 1-4번지  
☎ (02) 723-4600  
제2매장: 서울 중로구 견지동 68-1 ☎ (02) 738-3939



다용용 법요집 및 괘불



- 〈 괘 불 〉
- 규 격: 높이 7자, 폭 4자 5치
- 특 징: 방수완벽, 조립간편
- 가 격: 90만원(괘불에 포함)

▶ 괘도내용: 법회식순과 찬불가, 기초초리  
감 수: 암도 큰스님

佛敎布敎資敎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峯洞 195-6  
電 話: (02) 772-9052, FAX: (02) 755-0479  
(02) 672-1333, 723-4599